

람은 책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 은하계와 같은 성계는 현재 이 소우주 속에 27억여 개 내지 30억 개가 못 되게 있다. 이는 사람의 눈으로 물체를 보는 방식을 사용하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일종 성체(星體) 구조의 형식으로 말한 것이며, 장래의 우주는 또 이 숫자와 같지 않다. 석가모니는 한 마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여래불(如來佛)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다. 석가모니 역시 여래불이다. 그는 여래불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다. 이는 불안(佛眼)으로 물체를 보는 방식으로 본 것이다. 사실 누락 없이 본다면 소우주 내의 성체(星體)는 모래처럼 많으며 마치 분자의 밀도와도 같다. 이 소우주의 범위 그것 역시 외각(外殼)이 있다. 그럼 그것이 이 우주의 가장 큰 범위인가 아닌가? 물론 아니다. 더욱 크고 광활한 공간에 서서 이 소우주를 본다면 역시 단지 거대한 공간의 한 입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우주 밖은 무엇인가? 아득한 시공(時空)의 과정을 거쳐 먼 곳에서 본다면 마치 반짝이는 한 점을 발견한 것과 같다. 그것과 더욱 가까이 접근하면 이 반짝거리는 점이 갈수록 더욱 크고, 더욱 크고, 더욱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에 그것 역시 우주이며 우리 이 우주의 크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가 얼마나 있는

# 法輪大法

## 休斯頓法會講法

### 휴스턴법회설법

李洪志

두 찾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다. 현재 실증과학은 한 가지 가상이고 인류의 방향은 잘못된 것으로 우주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공간의 존재를 승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똑똑히 말할 수 없는 다른 공간의 각종 현상은 오히려 인류 이 공간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승인하지 못하며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여긴다. 만약 현대의 과학방법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럼 그것은 모두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 왜냐하면 과학이 과학에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사람이 초월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우주를 말할 때 소우주(小宇宙)의 개념을 논한 적이 있다. 이 소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론 사람의 사상 역시 줄곧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탐구하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소우주는 현대 과학 중에 아직 이 개념이 없다. 과학은 이 우주란 바로 눈으로 본 우주라고 여기고 있다. 내가 말한 이 우주 그것은 얼마나 큰가? 인류의 숫자, 인류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구조를 말할 수 있다 — 여러분은 소우주 중에 은하계와 같은 성계(星系)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가?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이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

사람은 또한 것처럼 큰 지혜와 상상력이 없다. 내가 말한다면 불타(佛陀)야말로 가장 큰 과학자이다. 인류의 과학은 인류 자신을 봉폐했다. 인류의 실증과학은 인간에게 많은 오류를 조성케 했으며, 여기로 국한했다. 당신이 그것을 초월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런 소위 과학으로 갈수록 자신을 더욱 심하게 봉폐함으로써 우주의 진상을 더욱 인식할 수 없게 한다. 현재의 실증과학은 인간의 발전이 진화해 온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진화론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진화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인류는 역사상 끊임없이 여러 차례 문명이 나타났으며 때 문명시기마다 부동한 내용이 있었다. 나는 말을 한 김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게끔 하려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화층차가 비교적 높고 이해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수) 나는 이 방면을 좀 많이 말하고자 한다.

우주의 구성은 지금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폭발로 형성된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해 온 것이 전혀 아니다. 애초에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을 때 진화론은 흠집투성이었다. 그 자신 역시 전전공공하면서 내놓은 것이며 그 속의 가장 큰 결함은 바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의 상당히 긴 역사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실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

## 休斯頓法會講法

### 휴스턴법회설법

李 洪 志

1996년 10월 12일

단지 사람의 한 개 분자입자만 보아서 사람을 보아낼 수 없다.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표면을 볼 수 있어야만 사람을 볼 수 있다. 가령 배수가 높은 초광각(超廣角) 현미경으로 원자를 지구처럼 확대하여 위에 얼마나 되는 생명이 있는지 본다면, 물론 사람은 지금으로서 해 낼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이 또 다른 광경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생명으로 말하면 그것 역시 광활한 천지이다.

나는 방금 분자는 표면적으로 가장 큰 입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한 층의 입자인가? 사람은 가장 큰 한 층의 입자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자보다 큰 한 층의 입자를 여러분은 눈으로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생각하지 못한다. 하늘 속의 이런 별들과 우주 중의 이런 별들, 그것이 한 층의 입자가 아닌가? 당신의 개념이 현재의 과학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보면 별들이 천체 속에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내재적인 연계가 있다. 거시적으로 가령 인체가 별을 초월하여 대단히 클 때, 당신의 체적, 당신의 신체, 당신의 사상, 당신의 용량이 그것을 아주 많이 초월했을 때, 마치 사람이 분자를 보는 것처럼 당신이 되돌아본다면, 이런 별들은 미시적인 입자의 구조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 않겠는가?

인식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의 신체도 분자로 구성된 것으로, 물질세계의 일체가 다 분자로 구성되었으므로 사람은 분자의 에너지와 방사성을 감수하지 못할 뿐이다. 인류세계의 과학연구 수단, 화학실험 도구, 측정 도구 자체가 모두 분자로 구성된 표면물체이며, 인류가 에너지를 측정하는 계기가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분자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측정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분자의 에너지를 측정해 내지 못한다. 우주 중에서 분자는 절대로 최후 한 층의 입자가 아니다. 분자보다 더욱 큰 한 층 입자 위의 생명 역시 마치 사람이 원자를 보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수련 중에서 어떤 수련자는 단지 높은 데로 공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낮은 데로도 공이 자랄 수 있다. 그 층차에 입각해 사람을 보면 더욱 별도로 되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분자 한 층은 아직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큰 입자가 아니다.

우리는 원자 속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전자가 원자핵을 에워싸고 운동하는 형식은 우리 이 지구와 몇 개 큰 행성이 태양을 에워싸고 운행하는 형식과 같지 않은가? 당신은 그것이 작다고만 보지 말라. 입자는 비록 미시적이지만 그것의 층면(層面)은 더욱 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체적은 아주 크다. 예컨대 사람을 보는데

## 휴스턴법회설법

李 洪 志

(1996년 10월 12일)

나는 휴스턴 정부와 휴스턴 시민들이 내게 준 영예에 매우 크게 감사드린다. 나는 수많은法輪功(파룬궁) 제자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대법(大法)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열애(熱愛)에 감사드리기 바란다. 우리 박수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 어떤가? (박수) 나는 휴스턴 정부의 우호적인 성의와 휴스턴 정부가 내게 준 영예를 모든法輪功(파룬궁) 제자와 중국인들에게 가져다주겠다.

나는 늘 백인·흑인·황인종 그리고 기타 종족의 제자를 포함한 미국法輪功(파룬궁) 제자들을 걱정해 왔다. 법(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들의 연분(緣份)이 닿았기 때문이므로 줄곧 여러분의 수련이 어떠한지 와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 적이 없지만 모두 책을 보았고, 또 이 법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늘 사부를 만나보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나를 만난 후에 마음이 좀 놓인 것 같다. 사실 나는 — 당신들이 경문(經文)이라고 부르는

— 그런 짧은 문장 속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주었다. 나를 만나지 않아도 수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아무것도 빠짐이 없다고. 왜냐하면 진정한 수련은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고 사부를 만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있지 않은 지 이미 2천여 년이 지났지만 후세사람들은 줄곧 수련하고 있다. 그들 역시 석가모니 부처를 볼 방법이 없지만 여전히 수련 성취할 수 있다. 이는 그의 경서가 인간 세상에 있고 그의 법신(法身)이 사람을 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이렇게 큰 법(法)을 전했고, 여러분도 책 속에서 이미 다 이해했다시피, 역사상에서 지금껏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진정하고 완전(完整)하게 체계적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이치를 인류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인류사회에서는 절대로 인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남겨줄 수 없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의 경서를 본 적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후인(後人)들이 정리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이치를 말했는데, 후인들이 전설과 기억에 근거해 정리했으므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다.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왜냐하면 이 역시 신(神)이 그 한 시기 역

사람의 두뇌는 신(神)에 의해 통제당하며 과학자의 두뇌 역시 신(神)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나는 말한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한 층 공간을 뚫을 수 있는지 생각해 내지 못한다. 분자든지, 원자든지, 그들은 단지 입자의 개체 형식, 입자의 한 점, 몇 개 입자의 존재형식에만 치중해 연구할 뿐이어서, 그들은 전체 분자와 원자입자가 존재하는 면을 볼 방법이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런 과학기술 수단이 없다. 사람이 정말로 이 면을 볼 때 사람은 곧 다른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다. 그러한 공간은 매우 광활하며 매우 아름답다. 그것의 시공과 대소개념은 속인의 이런 이념(理念), 속인의 사유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 사람이 이 사상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많은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공간은 우리 이 공간보다 더욱 광활하다.

입자는 모두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과거 이 우주는 바로 에너지로 구성된 것과 같다. 인류는 원자가 방사성이 있고 원자핵이 방사성이 있으며 중성자가 방사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쿼크, 중성미자, 더욱 미시적인 물질일수록 에너지가 더욱 크며 방사성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아는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분자로 구성된 이런 표면물질 역시 방사성이 있다는 것을

것이다. 더욱이 무엇이 승리와 실패인지 모를 것이고 만족의 기쁨이 없을 것이며 무엇이 고통인지 모르는가 하면 또한 무엇이 행복인지 모를 것이다. 마침 우주 고층에 정부(正負) 생명이 있고, 더 아래로 선(善)이 있고 악(惡)이 있으며, 더 아래로 마(魔)가 있고 불(佛)이 있고 신(神)이 있고 요귀가 있으며 선인(善人)이 있고 악인(惡人)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은 비로소 생기가 있는 것이며 모순 속에서 생명은 비로소 사는 흥미가 있다.

방금 공간을 말했으니, 그럼 내가 우주의 공간과 생명의 표면 물질형식을 더 말하겠다. 우주의 아주 높고 아주 높은 경지에는 유형적인 생명이 없다. 무형적이면서 공간 속에 가득 찬 극히 미시적인 그런 물질, 그것 역시 살아있는 영체(靈體)인데 또 그것보다도 더욱 미시적인 것이 있다. 그럼 표면으로 갈수록 우주의 입자 과립은 더욱 크다. 인류 현재의 과학은 일부 입자를 알고 있다. 예컨대 분자, 원자, 중성자, 전자, 쿼크, 중성미자이다. 그러나 물질입자의 최후——본원물질에 이르면 그건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인류 이 한 층 공간에서는 어떠한 물질이든 모두 분자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공기, 지금 여기에 있는 탁자, 탁보, 철, 흙, 돌, 물, 어떠한 한 가지 물건이든 모두 분자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되었다. 나는 늘 이 이치를 말하는데,

사 중에서 유일하게 인류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석가모니 부처는 확실히 아주 많은 말을 했지만 그때 인도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기에 바로 기록할 수 없었다.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떠난 지 5백년 후에야 후인들이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가 한 말을 문자로 정리해냈다. 물론 시간·지점·장소와 당시 사람을 겨냥했던 환경은 모두 변화가 발생했고 그 일체를 되찾을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설사 이렇다 해도 불경(佛經)은 여전히 진정으로 수련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불리(佛理)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홍대(洪大)한 불리(佛理)를 놓고 말할 때 그는 오히려 완정(完整)한 것이 아니며 체계적인 우주의 근본법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부처로서 그가 한 말은 확실히 불성(佛性)과 그 한층 불리(佛理)의 체현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노자 역시 석가모니의 정황과 같았으며, 당시 그들은 모두 설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대로 수련해 낸 고승(高僧)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늘, 앞 사람들이 여태껏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는 이런 한마디 말을 한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한마디 말이 유전하는데, 사부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을 신(神) 역시 하고

있는데, 못 신들은 “당신은 사람에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남겨주었다.”고 말한다. 석가·예수·노자가 남겨 놓은 것이 매우 적거나 혹은 불완전한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이 법(法)은 매우 크다. 당신들이 오로지 이 법(法)에 따라 수련한다면 당신은 곧 원만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중생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며, 그 속에 관련된 천기(天機)가 매우 많고 매우 크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서 이 책을 펼쳐서 본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치를 말한 이런 책임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여 다시 두 번째로 보면서 매 문자의 의미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오로지 진지하고 진지하게 그를 본다면, 다 본 후에 당신은 그가 일반적인 책이 아니며 당신이 첫 번째 보았을 때의 감수와 그 속의 내포가 모두 변화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세 번째로 다 보았을 때, 당신은 내포가 또 변화했고 또한 앞의 두 차례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바로 이렇게 보아 내려가며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세 번을 다 본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이미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며, 평생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의 표면에서부터 말한다면

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도하는 동시에 또 미래를 다지고 있다. 이 법(法)은 매우 커서 그 속에 포함된 내포도 크다. 사람이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공(功) 중에서 연마되어 나오는 것도 몹시 풍부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능(功能)이란 많고도 많아 매 한 층차에 모두 만 가지가 넘는다. 대법(大法)은 단지 불가 이 한 문의 것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능력을 집합한 것이며 그는 우주의 법(法)이다. 그럼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처럼 큰 것을 최후 원만으로 수련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 수련되어 나오겠는가? 수련하여 원만을 이룰 때면 층차가 높고 위력도 크며 법력(法力) 역시 매우 크다.

방금 내가 ‘상생상극(相生相剋)’이란 용어를 말했는데, 무엇을 상생상극이라고 하는가? 내가 이 이치를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무엇 때문에 신(神)은 그러한 인류사회의 나쁜 사람, 천상의 마(魔), 아래의 귀신(鬼)들을 모두 깨끗이 청리하지 않는가?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어느 경지의 생명이든 만약 부(負)면적인 생명의 작용이 없다면, 한 차례 노력을 거치지 않고 곤란을 거치지 않고 성공했으며, 저층 생명이 간고(艱苦)함과 부지런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면, 생명은 얻은 것을 소중히 할 줄 모를 것이며, 또한 얻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감각이 없을

등의 제한성 때문에 예수는 단지 이치의 표면만 말하고 그 것의 실질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오늘날 법(法)을 전하는 가운데 우주의 법리를 전면적으로 말하였다. 비록 이러하지만 말법시기의 사람들이 법(法)을 얻기란 여전히 어렵다. 이번에 내가 이 법(法)을 전하는 것은 중생들이 모두 법(法)을 얻기 쉬운 시기(時機)를 선택해 전했으며, 모든 종교가 말기에 이르고 인류가 가장 좋지 못할 때를 선택해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세인은 마음속에 사람의 규범이 없고, 또한 진심으로 신(神)을 믿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나는 이때를 선택해 법(法)을 전했다. 나는 방금 설법 중에서 내가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내가 사회에 대해 책임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신(神)을 위해 책임지는 것으로 어떠한 종교도 간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의 종교는 그들의 신(神)마저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때에 이르러 인심이 모두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 그가 아직도 불성선근(佛性善根)이 있으며 단지 인류의 부패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사람은 그래도 구도할 수 있다. 거기다 법(法)이 크기에 사람을 구도하는 능력 역시 크다.

이 법(法)은 인류사회에서 하루 이틀 들쭉거리며 전해지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람은 모두 지식과 진리에 대한 갈구(渴求)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람마다 모두 불성(佛性)이 있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말한 것은 불리(佛理)이며, 그는 당신 자신의 불성의 일면과 서로 통하는 것으로 당신이 보기만 하면 곧 친근함을 느낄 것이다. 진짜 법리(法理)는 당신을 격동시킬 것이며 당신은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갖고자 했던 것임을 느낄 것이다.

또, 수련에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에 법(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당신들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만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책 속에는 부동(不同)한 경지의 이치, 부동한 층차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불교 중에서 삼계(三界) 내에 33층의 하늘(三十三層天)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계(三界) 내에는 부동한 층차가 있다. 당신이 어느 한 층 하늘로 수련하고자 하면 당신은 그 한 층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만 수련해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신이 그 표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당신은 승화할 수 있다. 당신이 삼계 밖으로 수련하려면 곧 삼계 밖의 이치를 알아야만 수련해 올라갈 수 있다. 이 법(法)은 당신을 지도하여 부동한 고층차로 올라가게 하는 수련의 요소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대학에 간다면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인 것과 같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

학의 지식을 장악하지 못했으므로, 당신의 대학 공부를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치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책에서 많은 천기를 누설했다고만 보지 말라.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표면상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고, 당신이 진지하고 진지하게 이 책을 보려 할 때, 그 속의 내포가 지극히 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큰가? 당신이 얼마만큼 높이 수련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만큼 높이 수련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력이 있고 연분이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층차에서 온 생명일 것이다. 당신들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들 마치 다 같은 것 같다. 왜냐하면 표면상으로 당신은 그가 누군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늘 이 한 마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큰 법을 전하는 것 역시 함부로 사람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당신이 들었다면 아마 인연이 있을 것이며 바로 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목적 없이 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는데 장래에 실증될 것이다. 물론 내가 그렇게 큰 법(法)을 전하므로 나는 곧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함부로 천

신과 부처가 과거에 말한 법(法)은 현대인들로서도 진정하게 그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출가인 역시 경서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많은 역대 승려들이 쓴 수많은 책 또한 경서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법(法)이 난잡해져 세인은 어떻게 수련하는지를 모른다. 나는 또 기독교의 사람에게 “예수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왼쪽 뺨을 때릴 때 당신은 오른쪽 뺨도 그에게 내밀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 바로 지금은 신(神)이 말한 진실한 함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며, 모두 현대인의 사상관념에 입각하여 신(神)과 신(神)의 말을 이해하며, 과거 대각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법(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예수가 말한 함의는 매우 간단하다 — 다른 사람이 당신을 때릴 때 그는 당신에게 德(덕)을 주는 것이며,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 자신의 업이 제거된다. 당신이 태연하게 얼굴의 다른 쪽을 다른 사람에게 때리라고 할 때 그 경지는 이미 매우 높다. 종교를 믿는 것은 사실 바로 수련이다. 본래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 당신이 오직 사람의 일면을 잘하기만 하면, 예수·신(神)·불(佛)은 곧 당신을 도와 공을 연화해 주며, 모두 이렇게 그들이 제도하는 생명을 돕는다. 당시의 문화와 언어문자

부 속에 들어있다. 우주는 그로 인해 생겨났다. 그가 우주의 일체를 규범하고 그가 각 층차의 중생을 육성했다. 대법(大法)이 널리 전해지는 중에 수많은 부동한 층차의 신(神)·불(佛)·도(道)는 모두 나를 협조해 일하고 있다. 현재 중생이 법(法)을 얻는 가운데 가장 법(法)을 얻기 힘든 것이 바로 종교 중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믿는 신(神)이 있으며, 그들의 불(佛)이 있고, 그들의 도(道)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다른 신(神), 다른 불(佛), 더욱 높은 신(神)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법(大法)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데, 이는 그들이 법(法)을 얻을 수 없도록 저애하는 요소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이 과거의 진정한 신(神), 바른 신(神)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들로 하여금 법(法)을 얻기 어렵게 했으며 장애를 형성했다. 그들은 종교가 사람을 제도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했음을 모르며 못 신들이 모두 이 법(法)을 얻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는, “말법시기에 나의 법(法)은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사실 지금은 말법시기마저도 이미 지나간 지 아주 오래되었고 법(法)이 전혀 없다. 종교 중의

기(天機)를 누설하고 천법(天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는 절대로 안 되며 누구도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에 누가 함부로 천기를 누설했다면 천벌을 받아야 했다. 수련인은 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첫째, 사람이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고, 둘째, 수련하지 않으면 또한 진상을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인은 하늘의 이치(天理)를 알기에 말해낸 것은 모두 천기이다. 속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바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으로 그 자신도 떨어지게 된다. 그럼 나는 오늘 왜 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련해 올라오고 곧 수련 원만을 이룰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이 일체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우선 사람에 대해, 인류사회에 대해, 각계 중생들에 대해, 우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고려했고, 이런 기점에 서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잘할 수 있었다. 법(法)이 부동한 층차의 내포를 포함했고, 수련하는 사람이 온 층차가 비교적 높아서 현재 어떤 제자는 이미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되었는데, 바로 이 법(法)으로 지도한 것이다.

이 법(法)은 어느 정도로 높은가? 과거에 속인 중에서 법(法)을 전하는 사람은, 부처 이 층차를 초월한 법(法)을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층차의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신(神)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원인이 있는 즉, 사람은 늘 사람의 인식으로 신과 부처를 상상하는데, 이는 신과 부처에 대한 불경(不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 더욱 높은 부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함부로 부처의 이름을 말하게 한다면 바로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또 무의식중에 부처를 모독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정말로 신과 부처를 공경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설사 믿는다고 해도 성심(誠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를 아주 공경한다고 생각하며 부처의 이름이 그의 입에 달린 듯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부처란 이 글자를 말할 때, 사람들은 모두 경앙(敬仰)하는 마음과 숭경(崇敬)하는 마음이 일었으며 매우 신성하게 느꼈다. 지금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식사할 때 요리 메뉴마저도 ‘불도장(佛跳牆)’이란 이름이 있을 정도로 제멋대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부처는 사람에 비하면 신성하기가 비할 바 없다. 속인의 사유논리, 속인의 사상구조, 말하는 표현방식은 부처의 경지 중에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부처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모두 불경

경지 중에서 더욱 아래로 내려가 사람 이 일보까지 왔을 때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인류는 선과 악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으며, 또한 정(情)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치는 또 거꾸로 되었다. 사람의 이치 중에 왕자치국(王者治國), 병정천하(兵征天下), 강자위영웅(強者爲英雄)이 출현했다. 인류는 반신문화(半神文化)가 있는 후, 더욱 복잡한 문화표현이 나타났는데, 인류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등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인류에게는 바른 법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 또한 우주의 진법(眞法)이 무엇인지 모르며, 진정한 좋고 나쁨과 시비를 똑똑히 가리지 못한다. 사람은 또 모두 불성(佛性)과 마성(魔性)으로 동시에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정서가 불안정할 때, 악념(惡念) 혹은 충동을 일으킬 때는 바로 마성의 일면에 이끌린 것이다. 사람이 매우 이성적인 정황 하에서 심태가 아주 온화하고 선량하게 일을 할 때는 불성의 일면에 이끌린 것이다.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우주 일체 층차의 이치와 물질생명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고 빠뜨린 것이 없어 모두 이 법(法) 속에 있다. 대법(大法)은 불가의 범위를 초월했으며, 그에게는 일체 불(佛)·도(道)·신(神)의 이치가 있고 또한 그들의 이치를 초월했으며 전

공간적으로 모두 대단히 크다.

그렇다면 사전(史前)의, 매우 멀고 오래며, 매우 멀고 오래된 한 연대에, 이번 차례 인류문명 전에, 나는 일찍이 세인들 중에서 광범하게 법(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한 적이 있다. 그때 오늘날 불교처럼 사람을 제도했다. 이번 한 차례에 나는 대법(大法)이라는 근본법으로 더욱 큰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말하자면 내포가 아주 크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일이 매우 크기에 또 수많은 불(佛)·신(神)·도(道)들이 모두 내가 하는 이 일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법(法)은 단지 불가(佛家) 한 문의 이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전반 우주는 모두 ‘眞(쩐)·善(싼)·忍(런)’ 물질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아주 높은 경지 중에서도 ‘眞(쩐)·善(싼)·忍(런)’이다.眞(쩐)·善(싼)·忍(런) 중에서 좋음이 생겨날 수 있고, 아름다움이 생겨날 수 있으며, 자비가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정반(正反) 두 가지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럼 ‘인(忍)’, 그는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을 수 없는 것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法)이 아래로 갈수록 법리는 더욱 방대하고 복잡하며, 음양(陰陽), 상생상극(相生相剋)이 모두 ‘眞(쩐)·善(싼)·忍(런)’에서 나온다. 매 층차의

(不敬)이다. 하지만 부처는 사람에게 자비하고, 사람이 미혹 중에 있으며 또한 이치가 반대로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사람을 제도하려 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부처의 존재를 아는 것을 허용한다. 그럼 더욱 높은 부처, 더욱 높은 신(神)을 사람에게 알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해 쉽게 업을 빚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쉽게 불경할 수 있다. 바로 이 원인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며 사람이 더욱 높은 층차의 부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여래불(如來佛)이 사람을 보면 속인이라 가련할 정도로 작으며 마치 미세한 먼지와도 같다. 그렇다면 매우 높고 매우 높은 신(神)이 고개를 돌려 여래불을 본다면 역시 속인과 같다. 왜냐하면 그가 지극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 그가 사람을 보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는 줄곧 사람들이 속인사회에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며 사람은 우주 중에서 가장 대단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속인사회이 환경은 이 우주의 가장 낮은 층차로서 우주의 생명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높은 신(神)의 눈으로 보면, 인류 이곳은 우주의 쓰레기장이며 고층생명의 분노장이다. 그럼 더러운 분노 속에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낸다면, 이 자체가 바로 불경이다. 그러므로 더욱

높은 신(神)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은 모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전한 이 법(法)은 사람이 함부로 와서 지식으로 여기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신이 올 수 있다면 아마 당신에게 인연이 있을 터인데,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내 말을 기억하라. 물론 당신이 얼마나 큰 연분이 있든지 당신이 얻었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물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다 소중히 여길 것이다.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 홍콩에서 온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다. 목적은 모두 수련을 위한 것으로 하나는 사부를 보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法)을 들으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이 선(善)을 지향하고, 수련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부가 말한 것을 진리로 여기는데 사실 사람의 진리로는 대법(大法)을 가늠할 방법이 없다. 그는 우주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여기에 앉은 때 사람은 모두 마땅히 이 연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 법을 얻었다면 당신은 곧 수련해 나가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법(法)을 전한 방식은 역사상 사람을 제도한 어떤 한 차례와도 같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은 이미 차이를

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므로 내가 역사를 볼 때는 아주 멀리 본다.

이法輪大法(파룬따파)의 역사 역시 매우 오래고 멀며 매우 오래고 멀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람의 지금 시간개념으로 그를 분명하게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法輪大法(파룬따파)의 법리는 매우 크며 층차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나의 이 법문 중에서 수련하는 제자는 원만을 이룬 후에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갈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많은 천국세계로 갈 수 있다. 천국세계를 말하게 되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주 중에는 무량(無量)한 신(神)의 세계가 있다. 우리 은하계 범위 내에 대응되는 것에도 많은 천국이 있다. 부처에 대해 인류 역시 일정한 이해가 있다. 예를 들면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주지하는 극락세계(極樂世界), 그리고 유리세계(琉璃世界), 연화세계(蓮花世界), 미호세계(美好世界)가 있으며, 신(神)이 주지하는 신(神)의 세계가 있다. 서방종교의 예수, 또 성모 마리아가 있고, 또 일부 다른 정교(正教)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들의 천국이 있다. 물론 일부 천국은 인류가 인식하는 우주의 범위를 훨씬 초월했으며 이 소우주(小宇宙)의 범위를 초월했다. 그러므로 내가 수련의 것을 한번 말하려 하면 시간적으로나

와서 배우면 쉽게 이성적으로 법을 인식한다. 물론 문화층차가 약간 낮은 사람 역시 인연이 있어 오는데, 신과 부처에 대해 일정한 인식이 있으며, 특별히 법리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제고함이 매우 빠를 것이다.

여기에 앞은 또 일부 사람들은法輪功(파룬궁)에 대해 아직 그리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나는 다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法輪功(파룬궁)의 정황을 말해 보고자 한다. 왔으니 당신들에게 좀 많이 말해 주고자 한다. 내가 전한 이 법(法)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이 말을 하자면 길다. 현재 인류사회는 여러 차례의 문명을 거친 후에 남겨진 인류가 또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뜻인가? 이 미국의 대륙판을 가지고 말하겠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말하면 그것은 여러 차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여러 차례 올라온 것이다. 이 대륙 위의 문명 역시 여러 차례이다. 매 한 차례의 문명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자면 모두 상당히 오래고 먼 연대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해서 시간이 좀 짧은 것도 있다. 원인은 인류의 도덕이 너무도 빨리 부패해서 조성된 것이다. 속인을 초월하는 각도에서 보는 역사와 속인이 보는 역사는 같은 개념이 될 수 없다. 속인은 다만 현재 존재하는 인류문명 중에서 인류 역사를 보는데, 수련인과 속인을 초월한 이의 인식은 이 한 시기 인류문명

보았다. 어떤 한 가지 불법(佛法)이 전해져 나올 때든지 그는 모두 사람에게 출가하여 수련하라고 하지만 나 여기서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불교는 불교의 율타리 안에서 불교를 말하고 있고, 도교는 도교의 율타리 안에서 도법(道法)을 말하고 있으며, 그런 서방종교 그것 역시 그것의 교의에서 뛰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이 한 차례는 완전히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 우주의 근본대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사람이 수련하려면 곧 속인 중의 일체 물질이익을 다 내려놓고 심산수림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사찰에 가서 완전히 이 세간(世間)·세속(世俗)과 끊어야 비로소 청정한 수련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목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이익의 집착심에서 해탈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을 이러한 길로 이끌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한 가지 정황을 보았다. 사람이 가급적 빨리 원만에 이르고 동시에 또 수많은 세인들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 하자면, 오로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다. 사실 복잡한 환경 중에서도야 진정으로 사람 자신을 수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환경을 피해 수련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또한 한 가지 관건적인 문제는 바로 많은 수련방법이 자신을 수

련하는 것이 아니라 副元神(푸웬션)을 수련하게 된다는 것인데, 과거에 이는 큰 천기였다. 여러분은 책에서 다 보았을 것이다. 나는 오늘 바로 당신 자신이 자신을 수련하도록 하며, 이 법을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려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속인의 복잡한 환경 중에서 수련하도록 선택했다. 이렇게 수련하면 인류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다. 수련 중에서 속인사회에 영향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사회에 좋은 점을 가져다준다. 수련자 역시 사회 중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일과 생활이 있으며 사람 또한 줄곧 원만에 이르기까지 법(法)을 배우고 수련할 수 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한 갈래 수련의 길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법문의 수련과는 완전히 같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완전히 종교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인데, 나는 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곧 이 법(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법(法)을 얻게 하며 최후까지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은 원만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만약 어떤 사람 그가 금세(今世)에 수련할 수 없다 해도, 그가 이 법(法)의 표면 이치를 알면 그는 곧 좋은 사람이 될 것이며, 이러면 사회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인심(人心)이 선을 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

른 국가에서 온 화인(華人)이든, 노 화교(老華僑)를 제외하면 모두 문화층차가 비교적 높은 사람이며 화인 중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늘, 이 법(法)이 전하는 것은 다른 기공과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다른 기공을 연습하는 사람은 흔히 모두 노인으로 퇴직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절대다수는 신체를 단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모든 기를 연마한다. 그러나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노인이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청장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문화층차도 비교적 높다.

내가 법(法)을 말하고 공을 전할 때도 다른 기공사들과는 같지 않다. 일반적인 기공사들은 간단하게 이치를 말하고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작을 연마하고 정보를 내보내는지를 가르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법(法)을 전하여 당신들을 위로 이끌고자 한 이상, 나는 우선 법(法)을 말해야 한다. 매 한 차례 학습반의 매 한 강의는 법(法)을 한 시간 말해야 하고, 그런 다음 다시 당신들의 원만 수단인 - 연공동작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기공과 같지 않다. 법리의 내포 역시 매우 커서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좋게 느낄 것이다. 지식이 더욱 높은 사람이

실 꼭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아마 당신의 수련 비중이 얼마나 큰지 고험(考驗)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되어 나오는 것은 확실히 아주 격렬하다. 수련은 엄숙한 것으로, 한 관(關) 한 난(難)이 결코 장난 같지 않을 것이다. 수련인에게 무슨 번거로움이 나타날 때는 꼭 원인이 있다. 사실 누가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만들어 줄 때는 모두 당신의 제고를 돕는 것이다. 당신의 사상경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서 소업하게 한다. 그리하여 동시에 또 이 법(法)에 대해 당신이 확고한지 고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법(法)에 대해 확고하지 못하다면 그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설법 중에 나는 수련생들에게 어떤 미혹된 점이 있는지를 다 보고나서 그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아주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도 내가 오늘 말한 것들을 앞으로 수련의 체계적인 지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의 체계적인 수련을 지도하는 것은 오로지 『전법륜(轉法輪)』이다. 앞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전법륜』을 둘러싸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의 수련을 지도하는 것은 오로지 『전법륜』이 책뿐이며 이는 가장 체계적이다. 여기에 앉은 많은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다. 당신이 대만에서 왔든 중국대륙에서 왔든, 아니면 다

시피 법률을 아무리 많이 제정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다시 죄를 범하면 또 제정한다. 인류는 자신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현재 이미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자신을 위해 창조한 이 일체를 감당하고 있다. 자신을 봉폐함이 엄하면 엄할수록, 이 방면에서 더욱더 극단으로 나갈 것이며 동시에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법률조항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민족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불안하게 하는 인소(因素)는 바로 한 글자 — 德(덕)이다. 바로 사람의 心性(심성)이 안 되고, 지금의 사람이 사람의 규범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를 이토록 난잡해지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이 모두 매우 높은 사상경지 중에 있고, 모두 매우 높은 心性(심성)이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떤 모양이겠는가? 전체 인류사회가 어떤 모양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나쁜 일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 모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경찰마저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생각하여 인류의 도덕준칙(道德準則)을 수호할 것이다.

물론 인류의 이런 일은 내가 주요하게 하려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법(法)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법(法)을 얻고, 수련하여 원만을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만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다 보면 그는 반드시 이런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법(法)이 사회상에 전해져서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다. 수련인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법(法)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복잡한 환경 중에서, 현실이익 중에서 당신이 초탈해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대단하며, 당신은 마땅히 원만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 이 속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사람이 이 법(法)을 수련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법(法)을 전할 때 나는 이 법(法)이 아주 널리 전해질 것을 고려했으며, 역사 중에서 오늘날 어떻게 법(法)을 전할 것인지를 다져 두었기 때문이다. 기공의 출현은 바로 오늘날 내가 법을 전함에 길을 닦아준 것이다. 중국대륙에서 어떤 사람은 당시의 기공형세를 조신운동(造神運動)이라고 불렀다. 만약 시작할 때 이러한 환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법(法)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기공은 내가 법(法)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물론 현재 일부 가짜 기공사들이 나와서 화란(禍亂)을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 자연적으로

을 모두 합하면 1억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또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진동이 생길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이 법(法)은 아직은 과학기술계가 요해(了解)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래 인류사회의 과학은 모두 이로 인해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나는 확실하고 확실하게 인류에게 많은 천기를 알려 주었다. 인류는 완전히 봉폐되었으며 사람의 지혜 역시 제약되어 있다. 당신이 속인사회 중에서 얼마나 큰 학문이 있고 얼마나 큰 직함을 갖고 있든지, 당신은 속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실증과학은 또 인류를 봉폐하는 길로 사람을 인도하여 진정으로 우주의 진상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방금 나는, 주로 사람이 수련할 때 고생을 좀 겪는 것과 일부 고통을 감당하는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므로 나는 마땅히 편안하고도 편안하게 수련해야 하며, 마땅히 마난(魔難)이 없이 공(功)이 자라야 하고, 그렇게 많은 번거로움이 와서 나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수련인업을 갚지 않고, 경지를 제고하지 않으면 공(功)은 영원히 자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나를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데, 나에게 조건을 주지 않고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이혼하자고 야단이다.”라고 말한다. 사

어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또 당신 자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치는 바로 반대로 보아야 한다.

나는 늘 말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길 때,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해 줄 때, 혹은 당신이 무슨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당신에게 제고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수련해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비단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또 그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나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이런 환경이 없으면 당신은 확실히 업을 없애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하는 것은 안일이 아니며 당신의 수련 역시 속인사회의 수련환경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내가 이 법(法)을 전할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진동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이 법(法)을 수련하는 사람이, 매일 수련하는 사람이 천여만 명이다. 이 법(法)을 알고 있는, 수련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 역시 정상적인 것이다. 인류는 바로 이러한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법이 전해지고 있기에 반드시 그런 바르지 않은 요소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바른 것이 있으면 사(邪)한 것도 있는바, 사람이 어느 한 문으로 들어가는지 본다. 수련 중 나쁜 요소의 교란은, 사람을 또 수련 중에서 승화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을 교란하는 나쁜 것들이 없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수련할 수 없다. 개인 수련은 곧 이러하며 수많은 요소들을 건드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살아감이 마땅히 편안하고도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속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사람이라 그는 곧 좀 잘살고, 좀 즐겁게 살고, 고생을 좀 적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수련인으로서 고생을 좀 겪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이치는 사람 여기와는 반대인 것으로, 인류 이 공간의 이치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려 하면, 곧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쟁투할 것인데, 다른 생물 역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바로 업을 빚는 것이고, 곧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업을 빚기만 할 뿐, 업을 갚지 않고 고생을 겪어 업을 없애버리지 않는

다면, 이 업(業)은 쌓일수록 커지고 쌓일수록 커지는데, 마지막에 이르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겠는가? 이 사람이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흑색의 업력으로 가득차면, 이 생명은 곧바로 휘멸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휘멸되어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 고생을 좀 겪게 하고 죄를 좀 감당하게 하여, 고통 속에서 사람의 일부 업을 제거하면, 이후에 그는 매우 행복하게 생활할 것이다. 이는 우주의 바른 이치와 생명 순환의 법칙이다. 과거에 노인들은 늘 “사람이 어릴 때 병이 좀 있고 젊을 때 고통을 좀 겪으면 나중에 생활이 좋아진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리하다. 이것이 사람이 소업(消業)을 하는 법칙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업하지 않으면 곧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업력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에서 행복이 오겠는가? 또한 이 업력은 그것 자체가 바로 당신을 즐겁지 못하게 하고, 고생을 많이 겪게 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대가를 많이 치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것은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라. 수련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의 업력을 없애버리지 않고 고생을 좀 겪지 않으며 편안하고도 편안하려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당신이 여기에 앉아 ‘나는 오늘 삼계를 벗어나고 내일은 수련

하여 성불(成佛)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곧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실제 수련 중에서, 현실사회 속에서 벗어나고 부딪히면서 속인 중에서 집착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문화정도가 비교적 높은 일부 사람이거나 혹은 노인이라면 좀 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과 모순이 발생할 때 혹은 무슨 곤란에 봉착했을 때, 아주 냉정하게 다른 사람처럼 다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사회경험 중에서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람의 두려운 마음과 어쩔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다. 수련인은 단번에 이 문제를 투철히 볼 수 있다.

수련인으로서 모순에 봉착하면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당신이 진정으로 승화하여 올라올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길 때, 그는 당신에게 德(덕)을 준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길 때, 당신은 확실하게 고통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당신 자신의 업력 역시 아래로 제거되고, 또 德(덕)이 생긴다.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德(덕)은 곧 공(功)으로 전화되는데 그러면 당신의 공이 곧 자라오르지 않겠는가? 당신이 참는 동시에 정확히 인식할 수 있